



장성군은 오는 2023년까지 황룡강 인근 23만㎡ 부지에 황룡정원, 흥담정원 등 6가지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강에 6개 테마정원 조성

군, 황룡·흥담·청백리정원 등 2023년까지 90억 투입

봄·가을마다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피어나는 황룡강 인근에 6가지 주제를 가진 지방 정원이 조성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인근 23만㎡ 부지에 90억여원을 들여 황룡 정원, 흥담 정원, 검은 숲 정원, 청백리 정원, 푸른 불빛 정원, 주민참여 정원 등 6가지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3년이다.

집조만 무성했던 황룡강은 장성군의 체계적인 관

리로 매년 봄·가을 10억 송이 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꽃강으로 변신했다. 황룡강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자원이자 주민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는 힐링, 체험, 관광, 교육의 소통공간이 됐다.

특히 가을에 열리는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지역 대표 관광지이자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장성군은 황룡강변에 노란꽃장포 군락지 조성, 황미랜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외형적 개발 뿐만 아니라 시민 정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정원분야 전문가, 장성군의원, 용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방 정원이 완성되면 관광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구축돼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황룡강이 명실상부한 명품 생태 정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공무원 윤리활동' 점수화

인허가 업무 상·하급자 중복 점검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함평군이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윤리 활동실적을 관리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공감사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무원 스스로 공직 업무 처리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함평군은 현재 ▲정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분야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지난해 전남지역 1위(행안부장관상 수상) 달성에도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자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재정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백·e 시스템과 환경·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상·하급자가 중복 점검하는 자기진단, 공무원 개인윤리 활동 실적을 계량·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등의 기존 시스템도 더욱 강화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직 비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렴도 상상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지역 공예인들이 유기능 마스크 1500장을 손수 제작해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담양군에 기증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공예인들의 '남수단 어린이 사랑'

직접 만든 유기능 마스크 1500장 전달... 지난해엔 희망티셔츠

담양지역 공예인들이 직접 유기능 마스크를 제작해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공예인협회 회원들은 최근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직접 제작한 유기능 면마스크 1500장을 군에 전달했다.

이번 희망마스크는 지난해 담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한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희망티셔츠 1004장 보내기'에 이은 후속사업이다.

희망마스크는 살레시오 선교국을 통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희망티셔츠 역시 살레시오 선교국을 통해 남수단 케레피지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전달됐다.

현지 선교국 관계자는 "한국 어린이들이 직

접 그린 그림과 글이 티셔츠에 예쁘게 표현되어 현지의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전했다.

남수단은 영화 '올지마 톤즈'의 실존인물로, 2010년 암 투병 끝에 선종한 뒤 담양 천주교구에 안장된 고(故) 이태석(요한 세례자, 1962~2010) 신부가 생전에 활동했던 곳이다. 담양군은 국경을 넘어 송고한 인류애를 실천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무 담양공예인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각자 가정에서 손수 마스크를 제작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소외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전남 최초 학대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립나주병원·나주종합병원·빛가람종합병원 협약
응급의료 조치·심신 정기 검진·상담 등 체계적 지원

나주시가 전남지역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국립나주병원, 나주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 병원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의

료비와 심리 치료, 사례관리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 전담요원 등 3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단, 응급보호, 원 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2020년 신간!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형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제5쇄 판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최신간 양장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